

# “여유 있어야 이웃 돌본다면 평생 한 명도 돕지 못할 것이다”

글 유인종 편집부 / 사진 송은지 핀스튜디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제30회 아산상 시상식에서 주요 수상자들과 함께했다. 왼쪽부터 아산상 수상 단체인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의 마이클 리어던 조셉 이사장, 의료봉사상을 받은 이재훈 의사, 사회봉사상 수상자인 허보록 신부.

제30회 아산상 시상식이 지난 11월 22일 오후 2시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시상식에는 아산재단 정몽준 이사장과 이춘림·장정자·이상주·김종인·한승주·김유후·정진규·이승규·김태현·이병규·이봉주·최재성 이사, 최종원 감사,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조홍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최혜경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 2014년 아산상 수상자인 안광훈 신부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아산상은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의 뜻에 따라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와 나눔·효행을 실천하여 사회의 귀감이 된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포상함으로써 따뜻하고 건강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 1989년 제정했다. 시상 부문은 대상인 아산상과 의료봉사상, 사회봉사상, 복지실천상, 자원봉사상, 효행·가족상, 특별상 등 7개 부문이고, 상금은 아산상 3억 원, 의료봉사상·사회봉사상·특별상 1억 원, 나머지 부문은 3천만 원이다. 올해는 6개 부문의 수상자 11명(단체)에게 총 7억4천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제30회 아산상은 지난 3월부터 각 기관에서 추천받거나 재단 사무처가 발굴한 250건의 후보에 대해 예비심사와 서류심사, 현지실태조사, 종합심사와 심사위원단이 추가 실사를 벌인 데 이어 심사위원회(위원장 이병규)와 운영위원회(위원장 이흥구)를 개최 최종 수상자를 확정했다.

시상식은 이병규 아산상 심사위원장의 심사 보고에 이어 각 부문 수상자(10p 상자기사 참조)에 대한 시상식과 주요상 수상자(단체)의 공적을 소개하는 영상물 상영,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인사말, 주요상 수상자의 수상소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 “현장에서 봉사하는 분들과 함께하겠다”

정몽준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를 설립한 맥그린치 신부가 소속된 성골롬반외방선교회의 정신은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현장에서 함께한다’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아산재단의 설립정신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선친은 당신이 태어나신 시대의 가난은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지경이어서 아침에는 조반을 해먹고 점심은 굶고 저녁에는 콩죽으로 넘겨야 했고, 봄이 되면 그나마 양식도 다 떨어져서 풀뿌리에 나무껍질에 문자 그대로 초근목피로 목숨을 부지해야 했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이런 시대에 기업을 일으키셨지만 하루하루가 결코 여유 있는 삶은 아니었다”고 소개했다.

정몽준 이사장은 “선친께서는 개인이나 사회, 단체가 내 볼일 먼저 다 보고 난 뒤 남은 것으로 나보다 불우한 사람을 돕겠다면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단 한 사람도 제대로 돕지 못할 것이라며 복지사업을 시작하셨다. 선친이나 맥그린치 신부가 잘 살거나 여유가 많아서 남들을 도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정신으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앞으로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현장에서 봉사하는 분들과 함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아산상은 1950년대부터 제주도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무료진료 등 복지사업을 펼쳐온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이사장 마이클 리어던 조셉 신부, 관련기사 12~15p)가 수상했다.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는 아일랜드 출신의 맥그린치(1928~2018) 신부가 1954년 제주도에 정착해 설립한 단체로 목장과 사료공장 등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병원과 노인요양원·어린이집·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복지시설을 설립,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왔다.



제30회 아산상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정몽준 이사장.

조셉(64) 신부는 “아산상이라는 과분한 영예는 지난 60여 년간의 노고에 대한 격려이자 더욱 노력하라는 응원의 의미로 받아들이겠다. 우리 협회가 수행 중인 여러 사업들은 협회의 존재 목표가 아니다. 우리가 진실로 추구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앞에 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오지의 닥터’와 ‘푸른 눈의 신부’

의료봉사상은 2005년부터 13년간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오지를 찾다니며 105회의 이동진료를 통해 약 5만 명의 마다가스카르 국민들을 치료한 이재훈(51) 의사가 받았다(관련기사 16~19p).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의사를 훈련해 무의촌 이동진료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마다가스카르의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재훈 의사는 “의료봉사상이라는 귀한 상을 주신 이유는 더 잘 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의료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마다가스카르 주민들이 현대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사회봉사상은 25년간 가정해체나 경제적인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200여 명의 자립을 이끈 프랑스 출신의 허보록(59) 신부가 수상했다(관련기사 20~23p). 1993년부터 경북 영주와 안동, 경기 군포와 과천에서 소규모 가정 형태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운영해온 허보록 신부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다. 좋은 사회복지사와 봉사자, 후원자들의 도움이 컸다. 그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복지실천상은 오명원(54)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사무국장과 오미경(56)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이미경(60)





①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제30회 아산상을 수상한 이시돌 농촌산업개발협회의 마이클 리어던 조셉 이사장과 함께했다. ②김종인 아산재단 이사와 의료봉사상과 사회봉사상 수상자인 이재훈 의사, 허보록 신부(왼쪽부터). ③복지실천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한승주 아산재단 이사(왼쪽 끝)가 해주었다. 오른쪽부터 이미경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촉탁의사, 오미경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오명원 서울시립뇌성마비 복지관 사무국장. ④자원봉사상 시상 뒤. 오른쪽부터 한국상록회 최승명 사무총장, 이영수 보일러기술 명장, 정진규 아산재단 이사. ⑤김태현 아산재단 이사(왼쪽 끝)가 효행·가족상 수상 자들과 함께했다. 오른쪽부터 윤애경·박유순·김희선 씨.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촉탁의사가 수상했다. 뇌성마비 장애인인 오명원 사무국장은 1991년부터 저소득 뇌성마비 장애인들의 교육과 재활에 기여해왔다. 오미경 사무국장은 30여 년 동안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고, 이미경 촉탁의사는 국내 유일의 장애인복지관 상근의사로 30년간 근무하면서 장애인 복지와 재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자원봉사상은 한국상록회(총재 김영호)와 이영수(63) 씨가 받았다. 한국상록회는 48년간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저소득 청소년 장학사업, 이·미용 봉사활동 등을 전개하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힘써왔다. 보일러기술 명장인 이영수 씨는 1998년부터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보일러 설비 기술을 가르쳐 자립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효행·가족상 수상자로는 윤애경(57·서울 송파), 박유순(75·전남 진도), 김희선(31·충남 공주) 씨가 선정됐다. 윤애경 씨는 뇌병변 장애를 가진 남편을 30년 넘게 간병했고, 결혼 후 20여 년 간 시모를 돌본 박유순 씨는 남편과 사별 후에도 8남매를 헌신적으로 양육했으며,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인 김희선 씨는 두 다리를 잃은 남편이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하도록 내조했다. 🇰🇷

**제30회 아산상 수상자(단체)** • 아산상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 • 의료봉사상 이재훈 • 사회봉사상 허보록 • 복지실천상 오명원, 오미경, 이미경 • 자원봉사상 한국상록회 이영수 • 효행·가족상 윤애경, 박유순, 김희선